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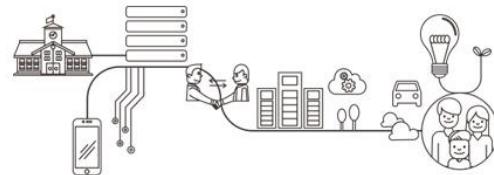
빅데이터
정부의 즐거운 변화



2016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성과 공유대회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



국민 생활과 함께하는
공공 빅데이터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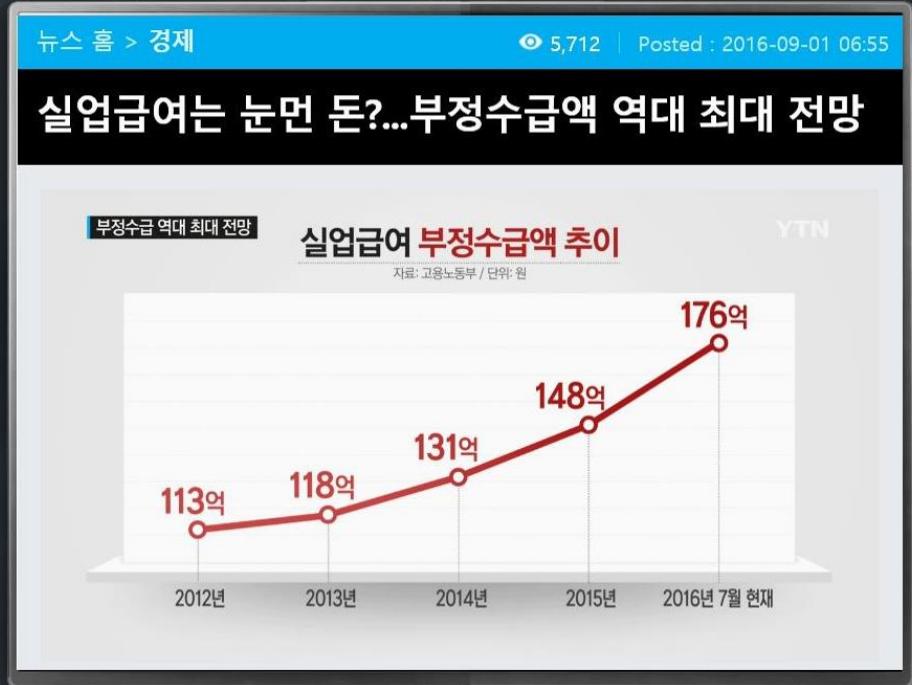
목차

I 사업 개요

II 분석 내용

III 활용 방안

IV 향후 확산 방안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돋기 위해서 도입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7월말 현재 벌써 176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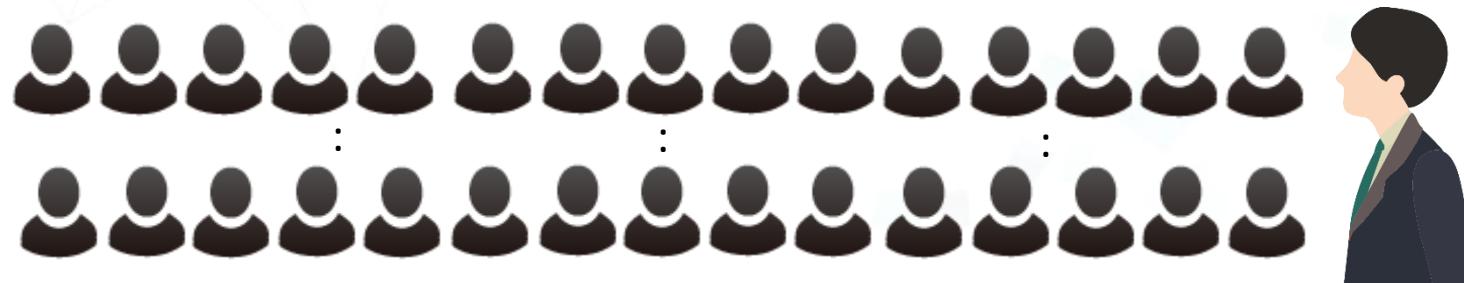
실업급여는 불황 장기화 영향으로 지난 2012년 3조6천 7백억 원에서 지난해 4조5천4백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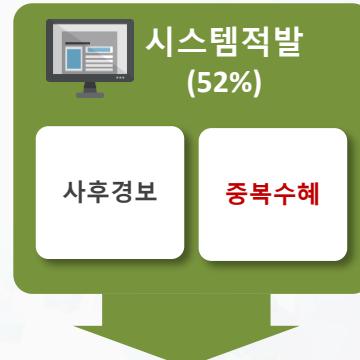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 필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

- 201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27만명, 지급액은 4조5천4백억원
- 부정수급적발은 21,497명(1.7%), 부정수급액은 148억원(0.3%)
- 조사관수는 100여명, 자동경보시스템 적발률은 17% 수준



적발 경로



적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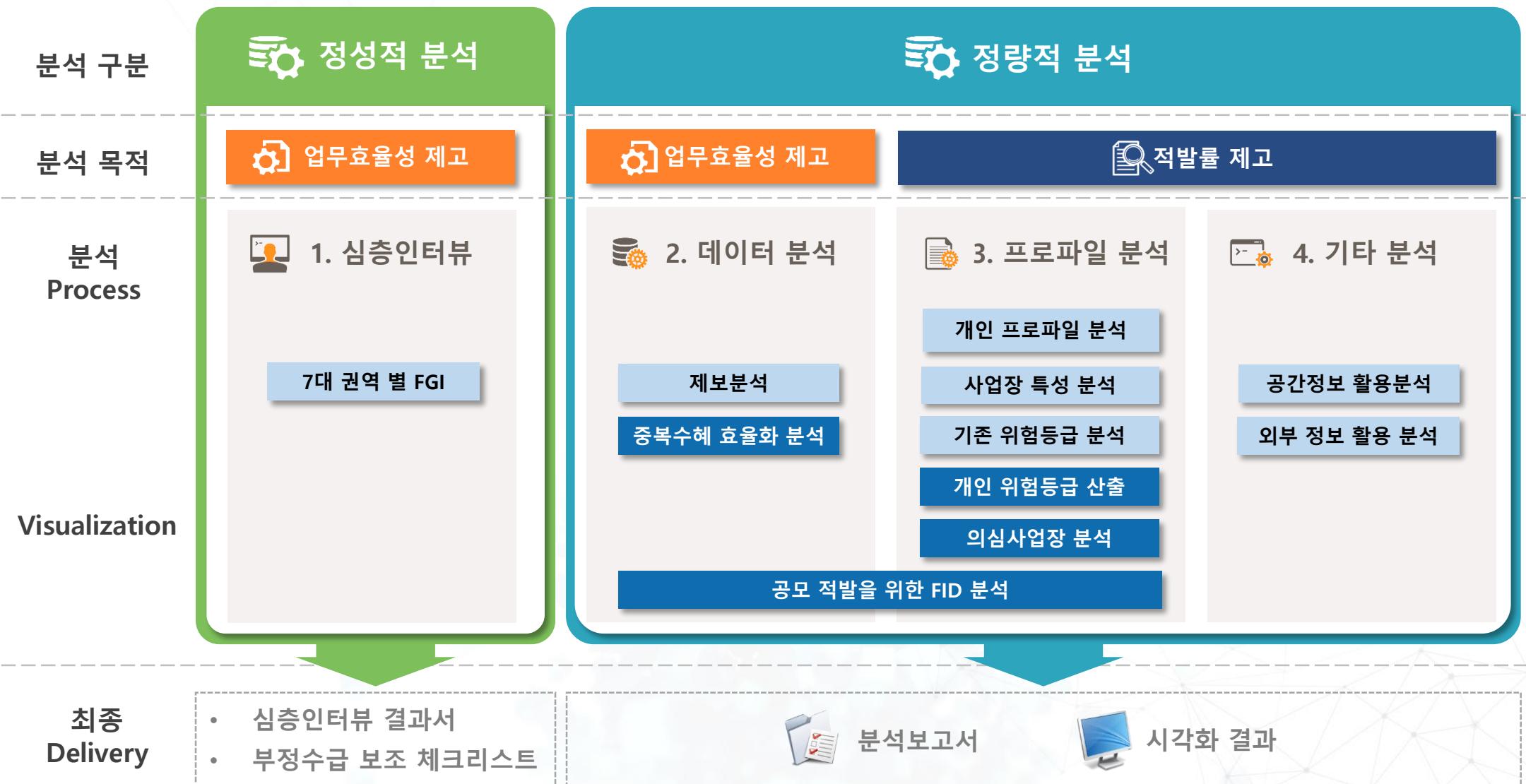


자동경보시스템
등재건 178,191명



분석 방안

- 실업급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
- 빅데이터 분석의 차별성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Network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 등을 고려



분석 데이터

실업급여관련 1억5천만건,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1천6백만건 등 RFP명시 정보 외 추가 정보 확보하여 분석 진행

○ : 확보(RFP 요구) ◎ : 추가 확보

기관	업무구분	대상정보	확보여부	데이터건수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정보	◎	12,768,994
		실업급여 인정정보	◎	72,720,039
		시업급여 지급정보	◎	72,290,430
	고용보험	사업장고용보험가입정보	◎	3,173,024
		사업장 관련정보	◎	1,155,300
	실업급여 부정수급	민원관리(제보)	○	740,340
		의심자적발 마스터	○	3,554,455
		의심자 적발 사후경보	○	408,794
		부정수급신고, 부정수급처리, 부정수급연대책임	○	400,733
		중복수혜_산재보험특수직종	◎	1,809,022
		중복수혜_산재휴업급여내역	◎	7,591,704
		중복수혜_국세청휴폐업정보	○	154,524
		중복수혜_마스터	○	1,999,079
		중복수혜(부정수급내역)	○	25,101
		부정수급기획조사대상사업장	◎	1,824,452
한국고용정보원	위험등급	모형결과기업정보, 개인정보	◎	1,661,517
		모형추출 대상별 결과	◎	18,260,280
		모형항목별 결과	◎	89,239,700
		모형상세정보 결과	◎	7,762,809

조사관 심층인터뷰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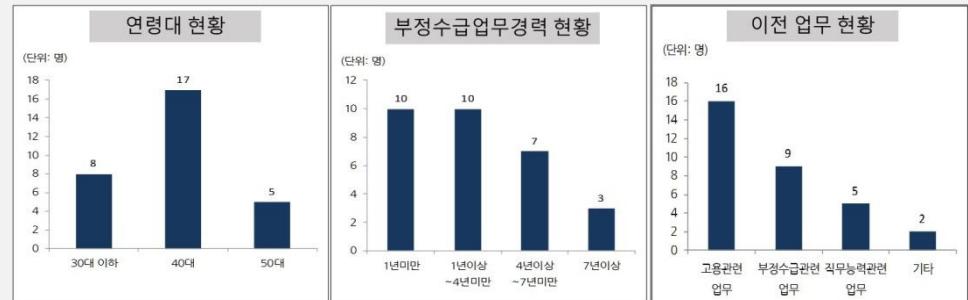
7개권역 30명의 부정수급 조사관을 대상으로 총 18시간의 심층인터뷰를 수행

◆ 추진배경

- 부정수업 조사관의 업무경험분석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업무의 보조 점검 툴 개발
- 적발률이 낮거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복수혜 처리업무 개선을 위한 유형발굴
- 기타 제도 및 부정수급 조사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선관련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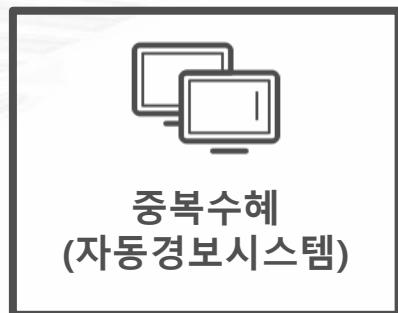
◆ 인터뷰 개요

- 인터뷰 일정: '16. 8. 30 ~ '16. 9. 12
- 방문기관: 7개 권역단위, 청/지청 (30명)



1. 중복수혜 효율화 분석

중복수혜란? 외부 연계기관의 정보를 조회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시스템 적발 체계



- 연계대상기관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산재보험, 산재(특수직)
- 대상자 : 정보연계작업일 기준 최근 3개월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전체
- 목적 : 해당 실업급여 신청자의 구직기간 내 근로행위 사실 파악용 (허위 근로)
- 적발방법 : 해당 실업인정기간 내 근로사실 정보 유무로 판단

1. 중복수혜 효율화 분석

□ 분석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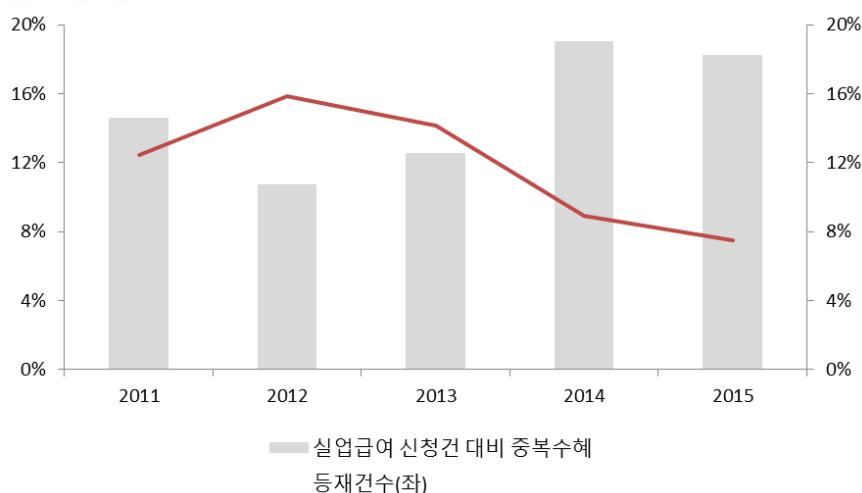
- 현재 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주고 있는 중복수혜 로직 개선을 위한 현황 분석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중복수혜 대상 세분화(Segmentation)

□ 분석 방향

- 현재의 부정수급 적발체계에 대한 로직 수정 제안
- 향후 확대 가능 대상정보의 방향성 제시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관련 제언

→ 중복수혜 대상자 중 실제 부정수급 확인건의 비율이 평균 11.8% 수준으로 보다 효율적인 조사 기준 수립이 필요

년도	실업급여신청 (A)	중복수혜등록 (B)	중복수혜 중 부정수급 건수 (C)	(단위: 건, %)	
				B/A	C/B
2011	897,913	131,381	16,323	14.6%	12.4%
2012	896,590	96,462	15,317	10.8%	15.9%
2013	918,045	115,232	16,317	12.6%	14.2%
2014	959,908	182,753	16,298	19.0%	8.9%
2015	942,133	171,905	12,910	18.2%	7.5%
2016	688,931	71,980	3,628	10.4%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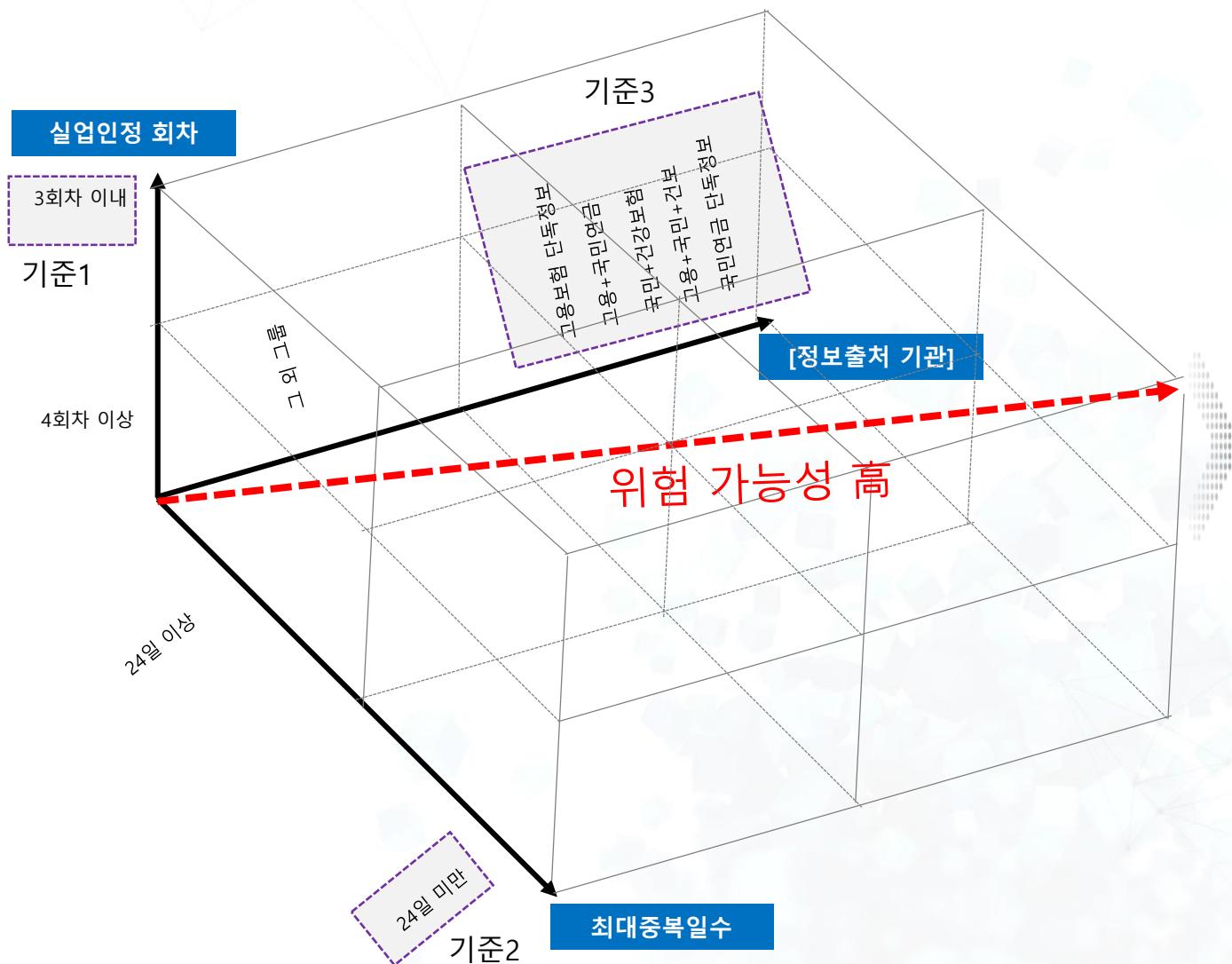


※ 본 기준은 과제 분석에 따른 기준이며, 한고원/고용노동부에서 발표 기준과 다를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이며, 2016년 7월까지 기준임
중복수혜는 중복수혜 처리 Table (TB_ILP_8011NT)상 등재되어 있는 건수 기준임

1. 중복수혜 효율화 분석

□ Segmentation(案)

- 현재 중복수혜 운영기준을 고려하여, 정보출처 기관별, 실업인정 회차별, 최대중복일수를 바탕으로 8개 Group으로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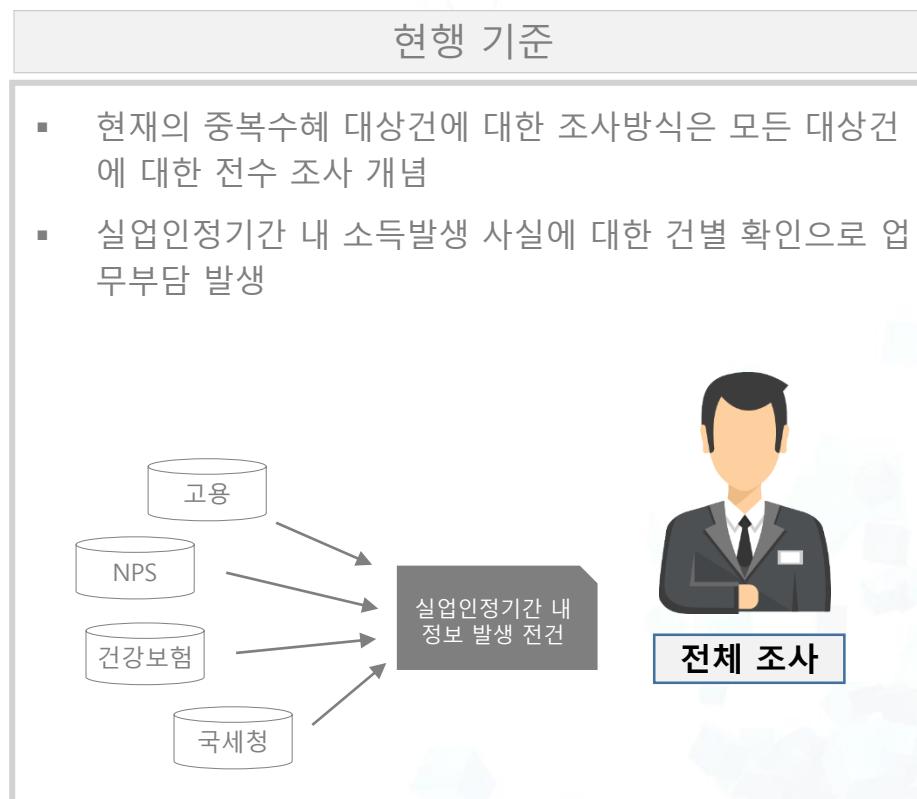


- ✓ 현재의 데이터 추출/연계 Process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 ✓ 분석된 기준(실업인정 회차, 정보 출처 기관, 중복일수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 실시
→ 운용의 용이성을 고려 적발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만 우선적으로 세분화 함
- ✓ 세분화된 고객군에 대해 부정수급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구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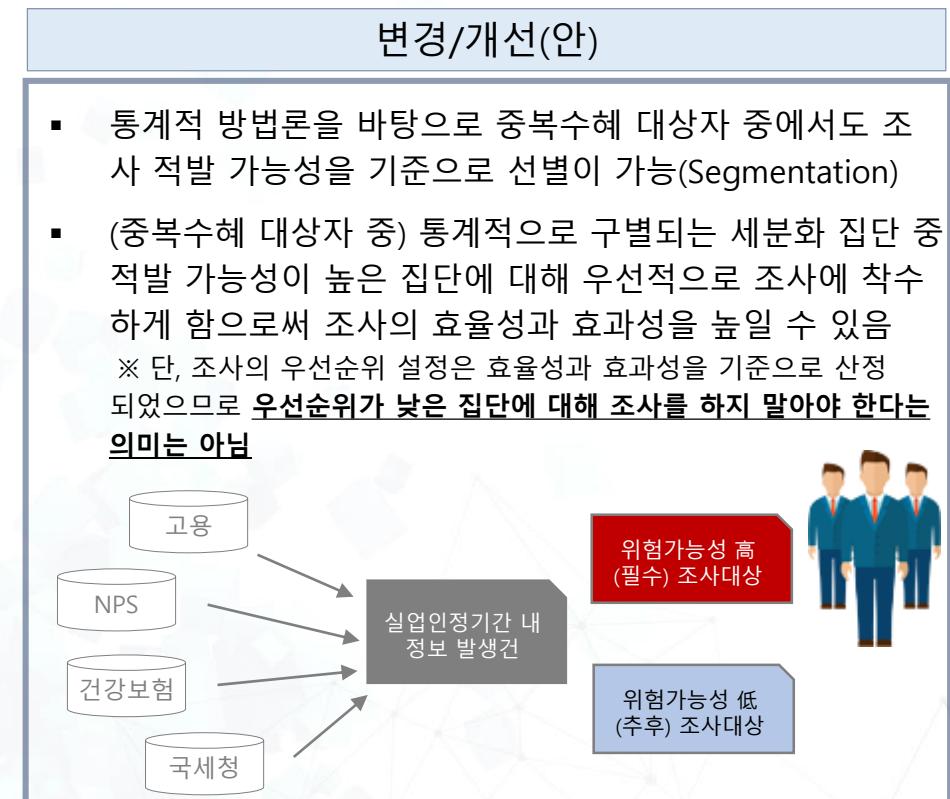
1. 중복수혜 효율화 분석

□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1, 기준2, 기준3을 동시 적용)

- (의무) 조상대상자를 현재 기준에서 변경기준으로 적용 시, 조사 대상자는 37,489명에서 24,220명으로 **35.4%**가 줄어들며 반면 적발률은 기존 22.7% → 27.5%로 **4.8%p**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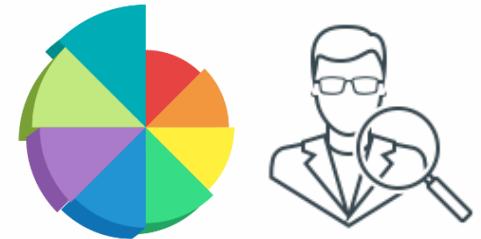
조사대상자(명) (S)	37,489
대상자 중 부정수급 분류자(명) (F)	8,507
적발률 (F/S)	22.7%



우선 순위 조사대상자(명) (S)	24,220
조사대상자 중 부정수급 분류자(명) (F)	6,665
적발률 (F/S)	27.5%

2. 공모 적발을 위한 FID 분석

FID (Fraud Identifying Diagram)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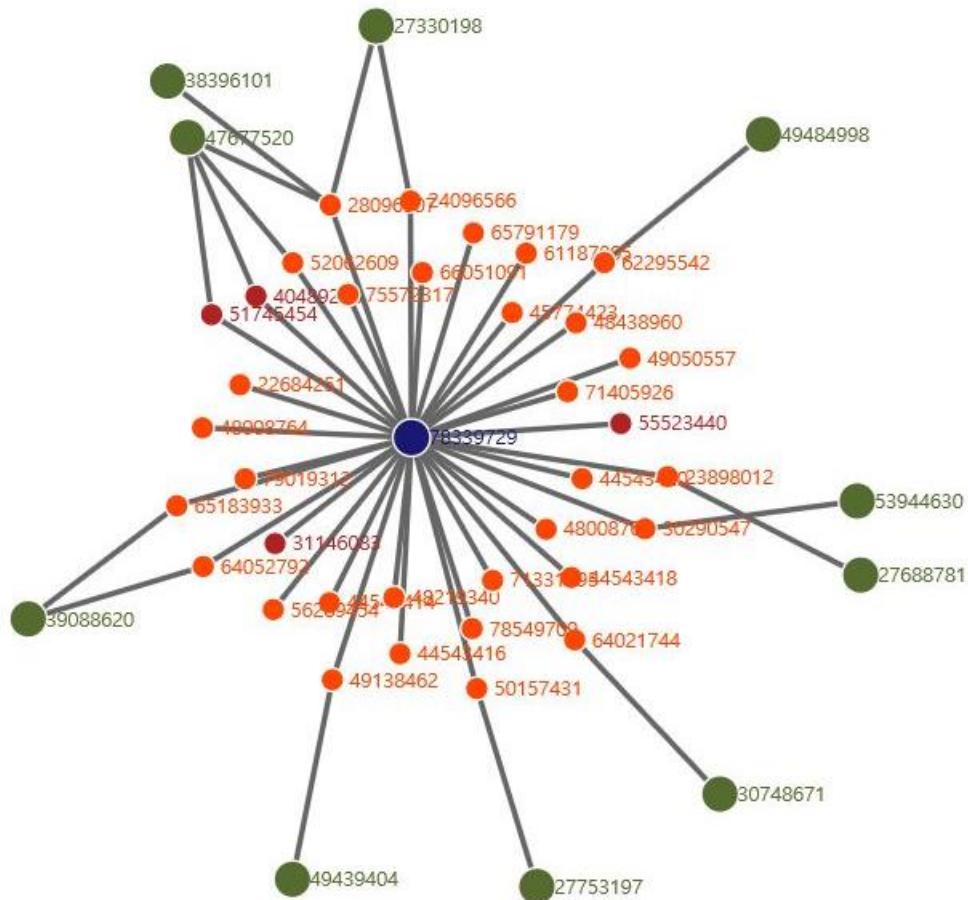


- 부정수급(Fraud case)과 같이 적발이 쉽지 않고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건들을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시각화 기법 중 Network/Graph Diagram을 적용
 - 주로 거래량이 많고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신용카드, 게임회사, 보험회사(보험사기), 시스템 해킹탐지, SNS분석 영역에서 주로 활용
- 특히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경우, 이직 사업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FID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 공모적발을 위한 FID 분석

사업장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쉽게 도식화하여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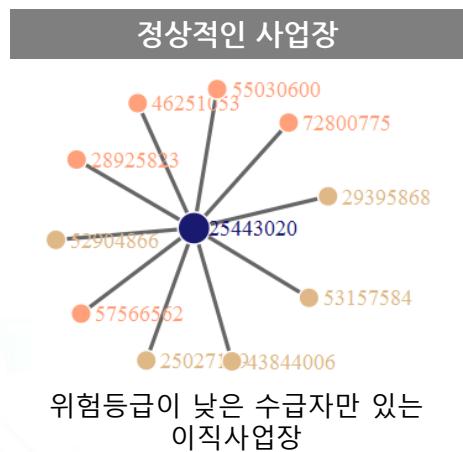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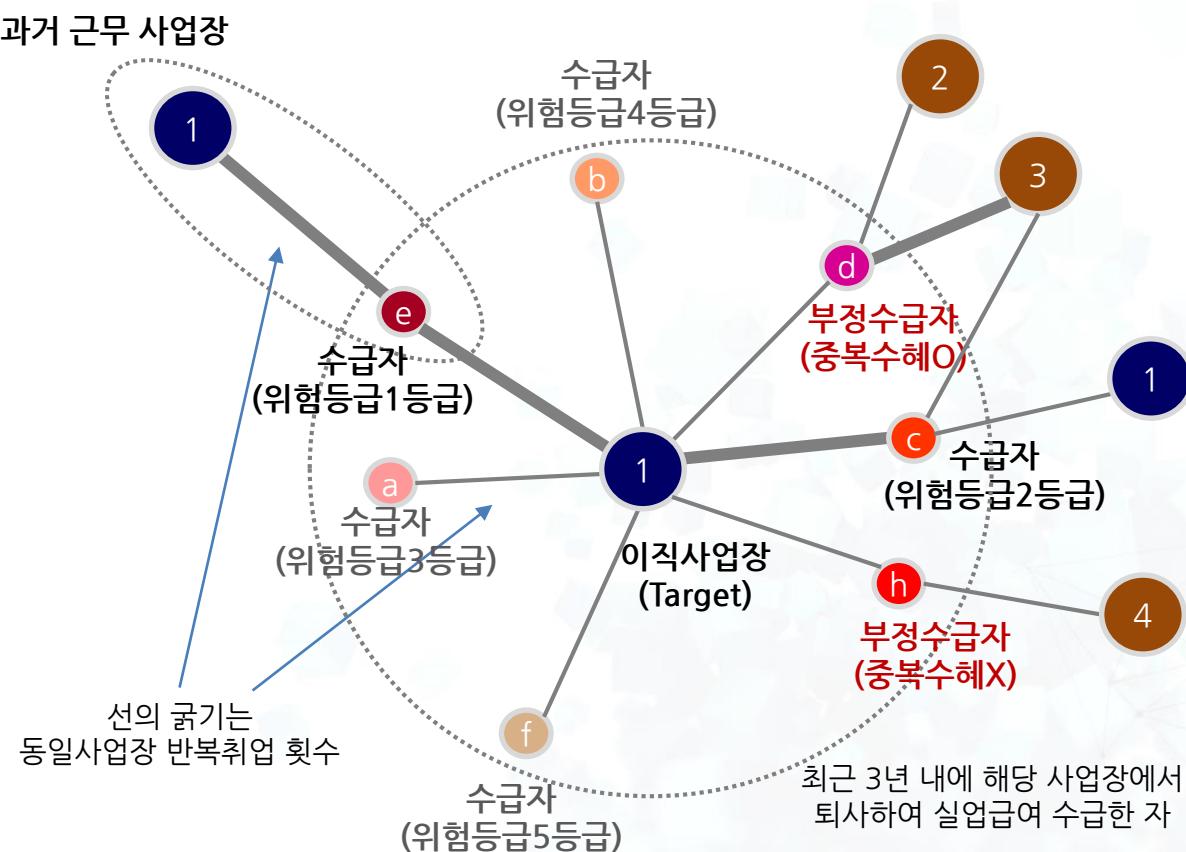


- FID를 사업장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2가지 탑입으로 구성
 - Type 1: 이직사업장(실업급여 수급자가 퇴사한 사업장) 기준
 - Type 2: 재취업사업장(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한 사업장) 기준
- 큰원은 사업장, 작은원은 실업급여 신청개인 (기준사업장 – 실업급여 수급자 – 기준보다 이전 근무 사업장)
- 선의 굵기는 반복재취업(실업수급) 횟수
- 실업급여 신청자를 색깔에 따라 세부 정보(위험등급 등) 제공

2. 공모적발을 위한 FID 분석

이직사업장용 FID (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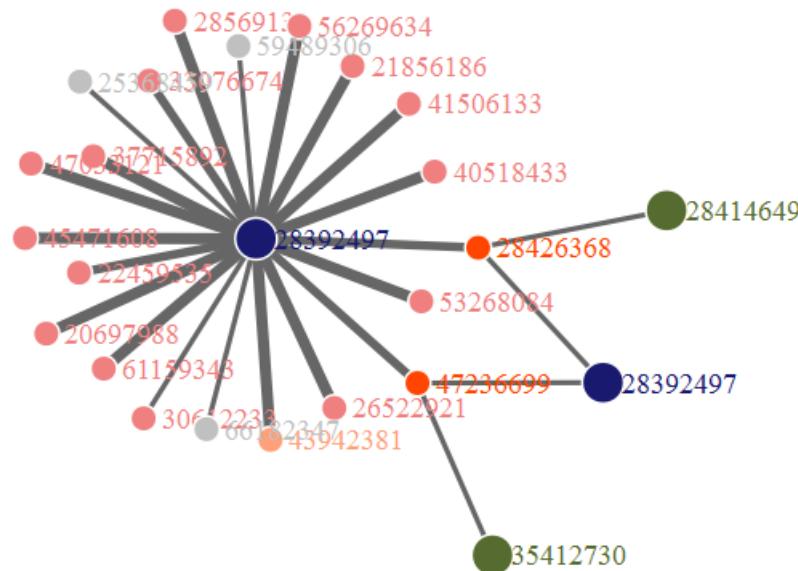
- 최근 3년 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한 자를 보여줌
 - 사업장-수급자의 연결 선 굵기는 ‘수급자가 연결된 사업장에서 과거 몇 번이나 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했는지’를 나타냄
 - 수급자 중 위험등급이 1, 2등급인 수급자와 부정수급자(해당사업장에서 퇴사 후 부정수급 적발된 자)의 경우, 과거 근무 사업장을 보여줌



2. 공모적발을 위한 FID 분석

□ Type1 : 의심사업장 유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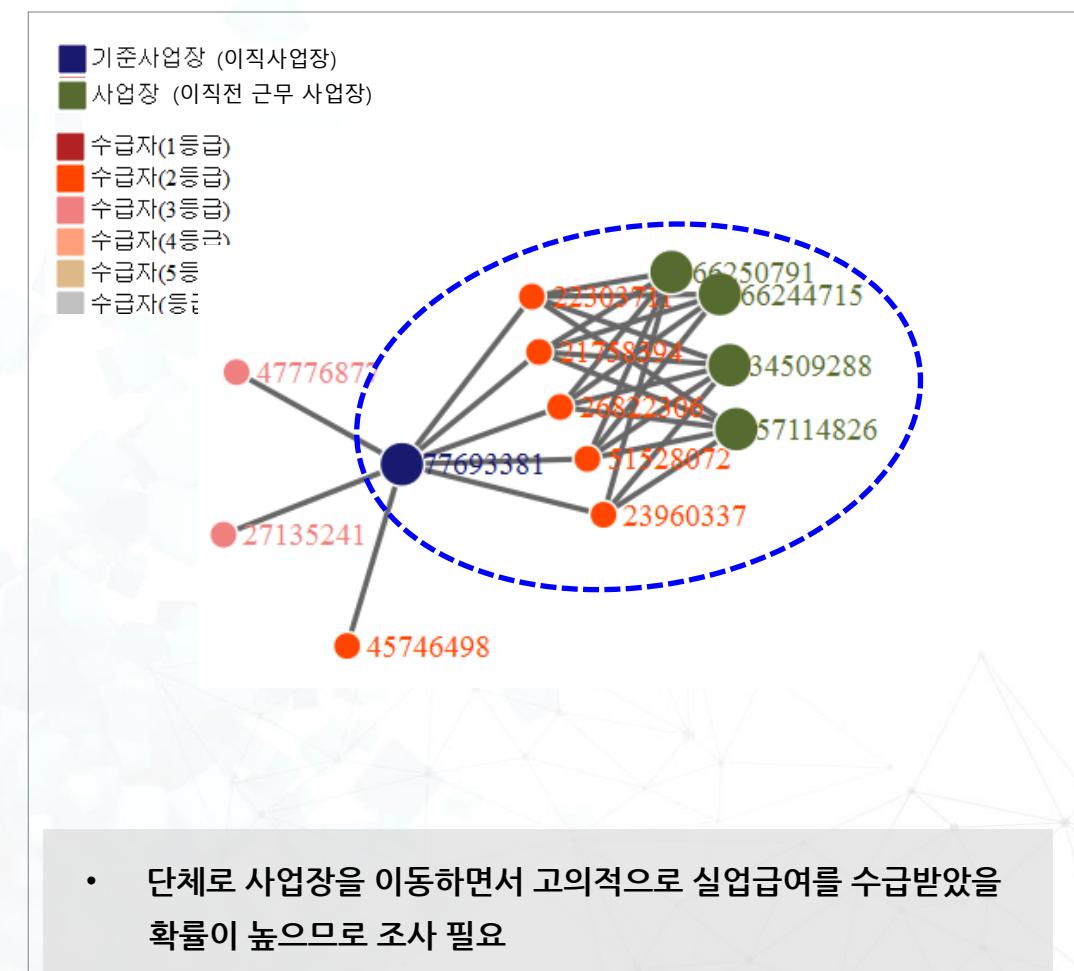
- 동일회사 반복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한 자가 많은 사업장



- 수급자 중 81%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직 → 실업급여 수급
→ 다시 해당사업장으로 재취업’을 반복

□ Type1 : 의심사업장 유형 2

- 동일 사업장에 근무했던 실업급여 수급자 단체가 동일한(이직>재취업) 타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단체로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을 확률이 높으므로 조사 필요

2. 공모적발을 위한 FID 분석

□ 재취업사업장용 FID (Type 2)

-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들 중, **취업경과일수가 90일 이하인** 자를 보여줌 (단, 취업 직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자에 한함)
- 근로자 중 위험등급이 1, 2등급이었던 자와 부정수급자(재취업 직전 근로했던 사업장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던 자)였던 자의 경우, 과거 근무 사업장을 보여줌
- Type1과 다르게 취업경과일수가 0~10일인 자는 별도의 색깔로 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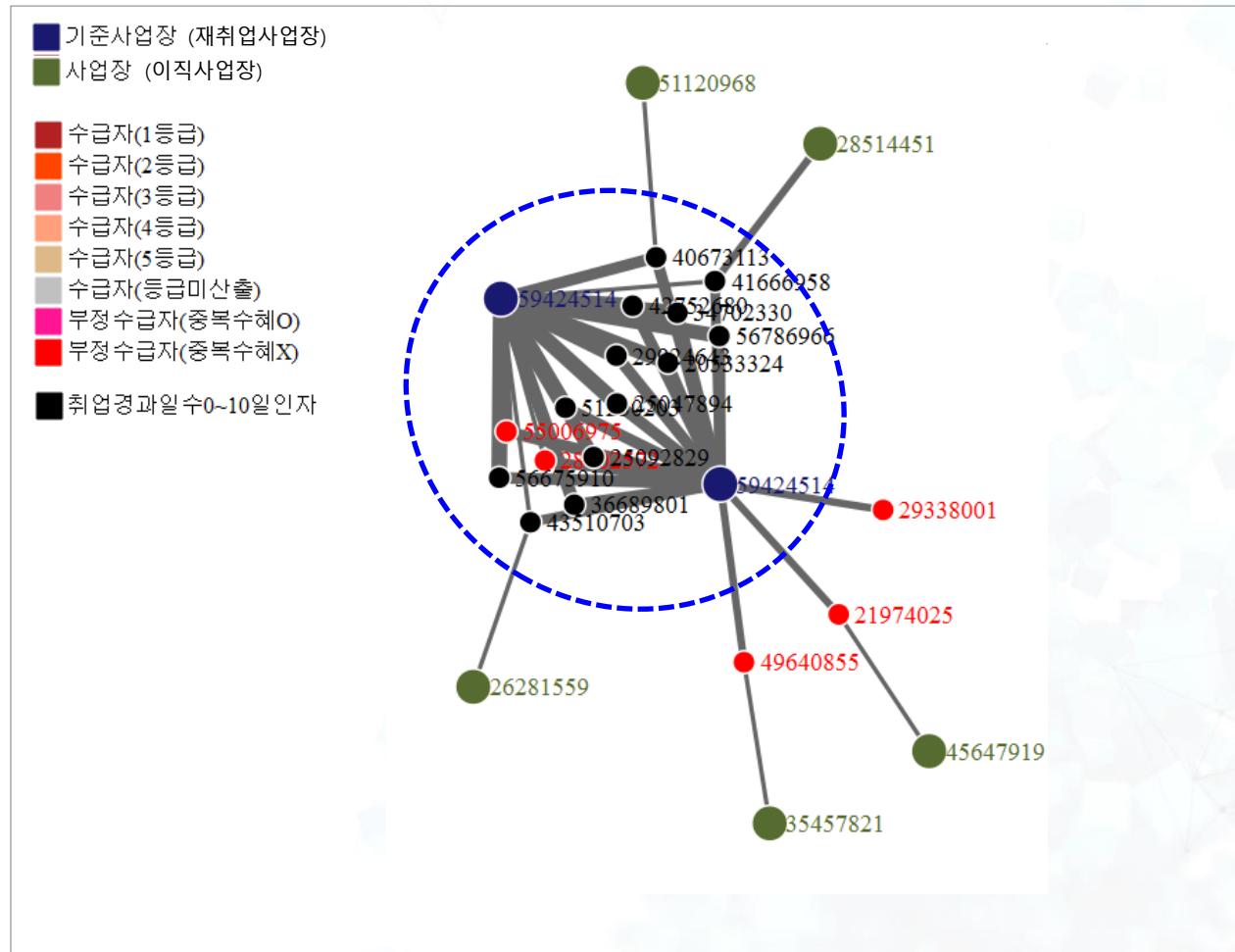
* 취업경과일수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자부터 사업장 채용일자까지의 일수

2. 공모적발을 위한 FID 분석

□ Type2 : 의심사업장 유형 1

- 실업급여 수급만료 후 짧은 기간 안에 최종 이직사업장에 다시 취득신고 된 피보험자가 많은 사업장

예시) 이전이직사업장번호 59424514



- 실업급여 수급만료 후 짧은 기간 안에 최종 이직사업장에 다시 취득신고 된 피보험자가 많은 사업장
-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수급자를 살펴보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이 서로 동일하며, 동일 사업장에 반복 재취업면서 여러 번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자
- 그 중 일부는 부정수급 적발이 되었으나, 다른 수급자는 아직 미적발된 상태
 - 사업장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사업장과 공모하여 (예. 허위 이직사유 작성, 고용보험 등록일 변경)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음
 - 해당 사업장 및 수급자 조사 필요

3. (개인) 위험등급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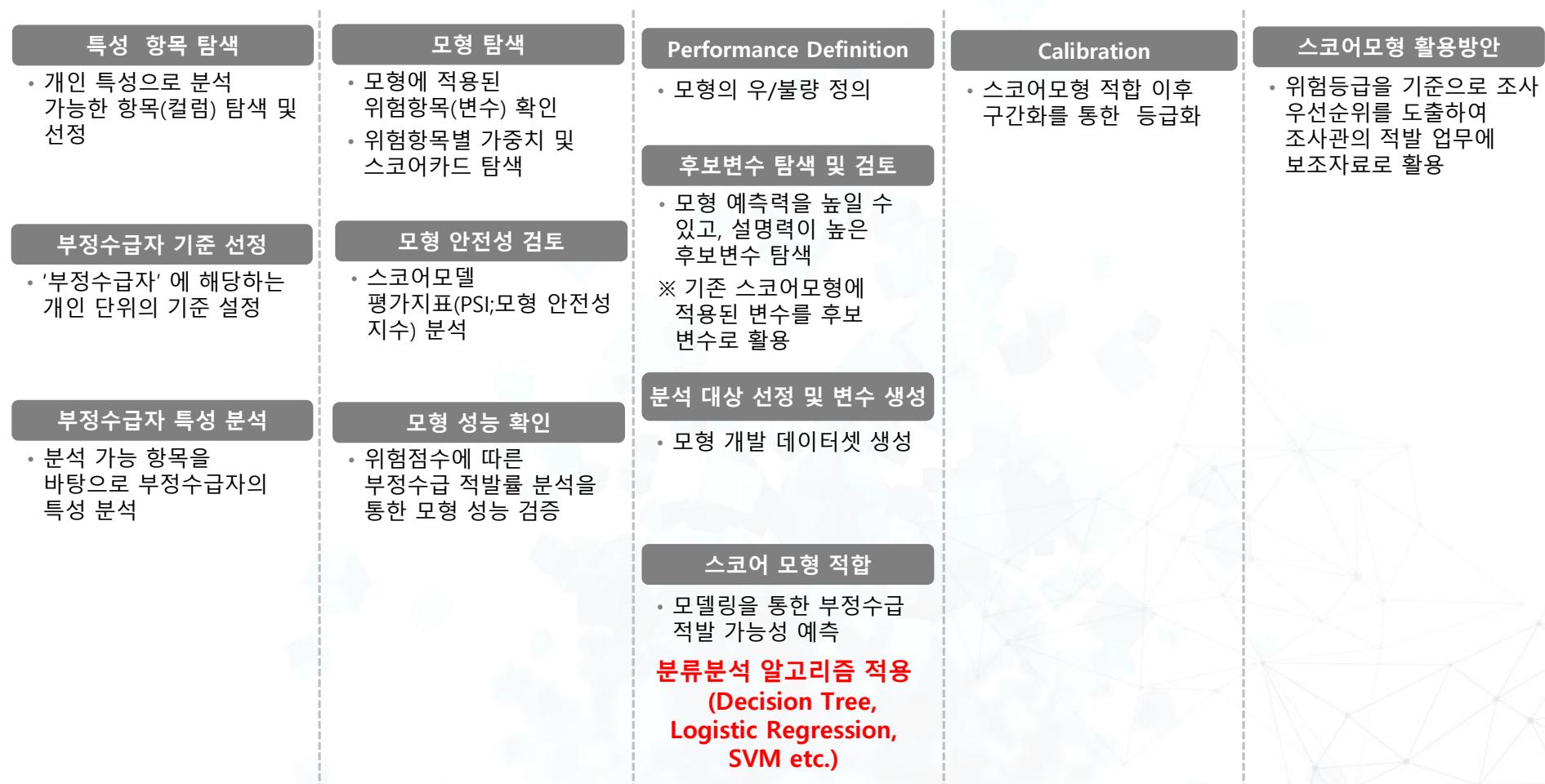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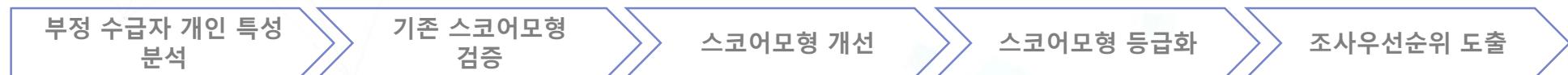
위험등급이란?

한고원에서는 2014년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Scoring 기법을 도입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개인별로 부정수급 의심점수를 산출하여 등급화함

3. (개인) 위험등급 산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개인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개인스코어 모형 성능 검증 및 모형 튜닝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률을 개선하고 조사우선순위를 도출함

■ 분석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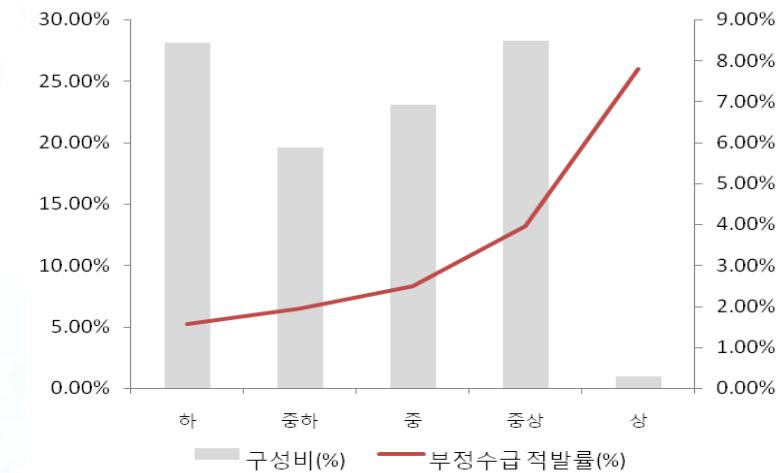


3. (개인) 위험등급 산출

□ (기존) 개인 스코어모형 운영 현황

-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자(개인/사업장)의 위험 정보를 스코어(점수) 형태로 제공
- 신청자의 특성 항목으로 정의, 점수를 부여하고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제공

위험등급	위험등급 산출건수 ⁽¹⁾	부정수급 적발건수 ⁽²⁾	(단위: 건, %)	
			구성비 (%)	부정수급 적발률 (%)
하	146,423	2,279	28.13%	1.56%
중하	102,067	1,966	19.60%	1.93%
중	119,998	2,985	23.05%	2.49%
중상	147,153	5,838	28.27%	3.97%
상	4,943	386	0.95%	7.82%
합계	520,584	13,454	100.00%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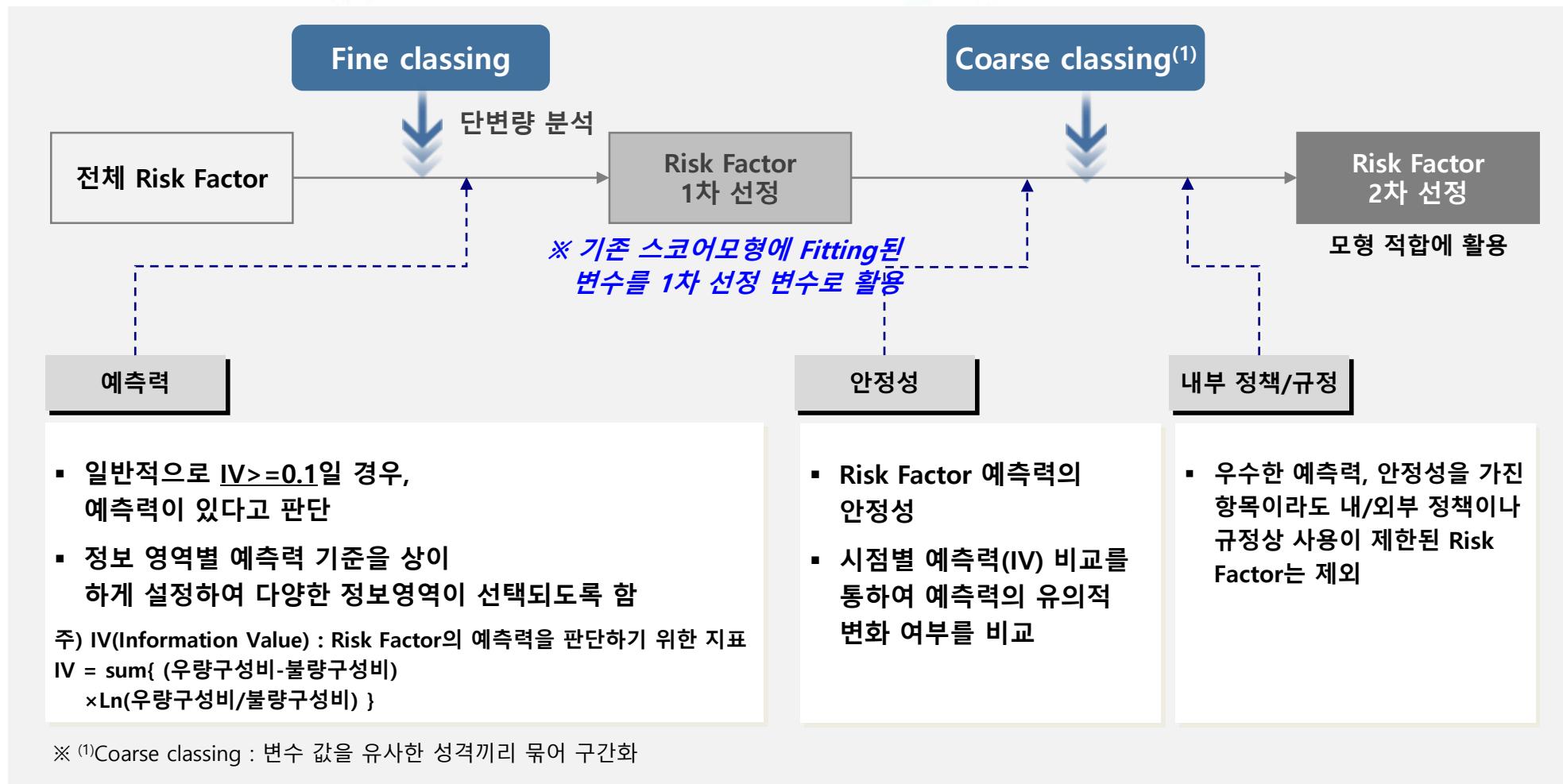


- 위험등급 “상”에 해당하는 수급자 집단은 부정수급적발률인 2.6% 대비 3배 이상인 7.8%의 적발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위험등급 “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집단은 부정수급적발률이 1.6%로 선량한 수급자 비율이 높음

3. (개인) 위험등급 산출

□ 스코어 모형 개발 : 변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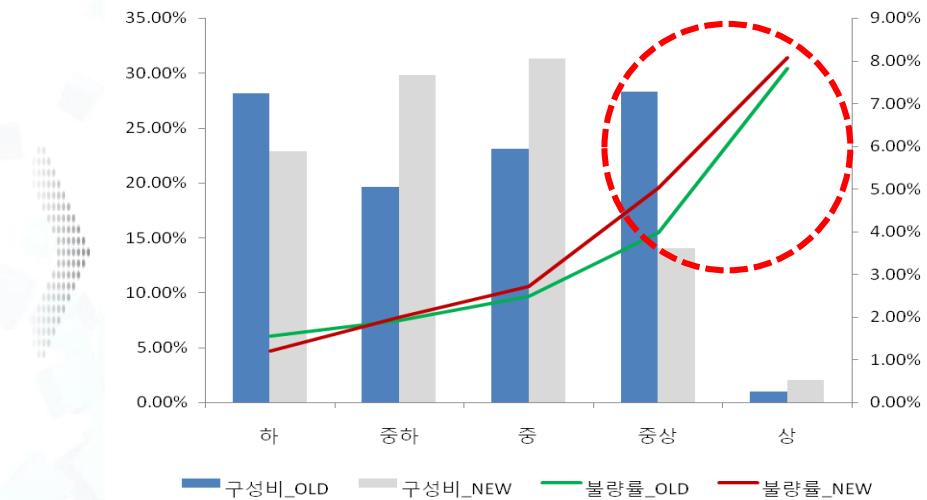
- 기존 스코어 모형에 사용된 16개 변수에 대하여 단변량 분석 및 모형 적합에 활용
- 통계적 기준(예측력)으로 1차 변수를 선정 후 변수의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모델링 대상 변수 선정



3. (개인) 위험등급 산출

스코어 모형 개선을 통한 Performance 확인

등급	구성비_OLD	구성비_NEW	불량률_OLD	불량률_NEW
5	28.13%	22.82%	1.56%	1.21%
4	19.60%	29.79%	1.93%	2.00%
3	23.05%	31.33%	2.49%	2.72%
2	28.27%	14.05%	3.97%	5.02%
1	0.95%	2.01%	7.82%	8.07%



- ✓ 고위험 등급(1~2등급)의 구성비는 13%포인트 낮춤으로써 우선 조사 대상 범위는 좁히고
- ✓ 불량률(부정수급 적발률)은 높여
→ 기존 모형 대비 Performance 개선

3. (개인) 위험등급 산출

위험등급 활용사례 1 : 중복수혜 시스템과 연계하여 중복수혜 등재건 조사우선순위 선정에 활용

중복수혜시스템 내 위험등급 활용(적발 기준_중복수혜)

구분	부정수급 적발률						구성비	대상고객 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111* 이외	18.32%	15.15%	12.48%	10.49%	7.78%	11.95%	30.3%	10,556
111* 해당	26.81%						69.7%	24,302
전체	22.31%						100.0%	34,858

- ✓ 중복수혜 효율화 분석을 통하여 발굴한 유형인 '11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코어모형을 통해 산출된 위험등급을 적용하여 Segmentation을 하여 조사 우선순위를 정하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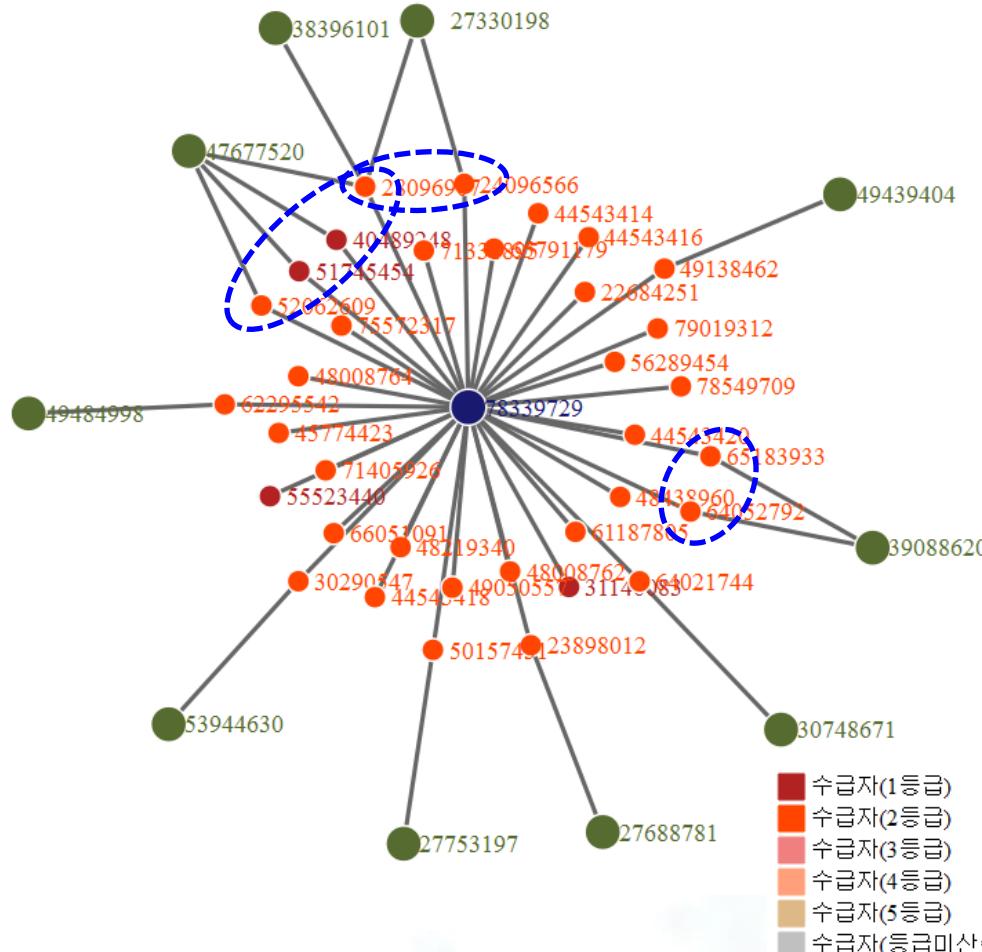
※ 데이터 추출 기준 : 실업급여 신청일자 기준 2015.01~2015.6(6개월)으로 중복수혜시스템 내 등재된 건
 ※ 111* : 중복수혜 효율화 분석을 통해 발굴한 유형으로 기준1, 기준2, 기준3을 동시에 적용하여 모두 '1'에 해당하는 경우

- 기준1(실업인정 횟수가 3회 이내 여부)에 따른 Segmentation -> 여(1), 부(0)
- 기준2(최대 중복기간이 24일 이내 여부)에 따른 Segmentation -> 여(1), 부(0)
- 기준3(중복정보 발생 기관을 통한 고신뢰 발생여부)에 따른 Segmentation -> 여(1), 부(0)

3. (개인) 위험등급 산출

위험등급 활용사례 2 : FID를 통한 부정수급자 적발 및 의심사업장 발굴에 위험등급 활용

FID - 수급자에 위험등급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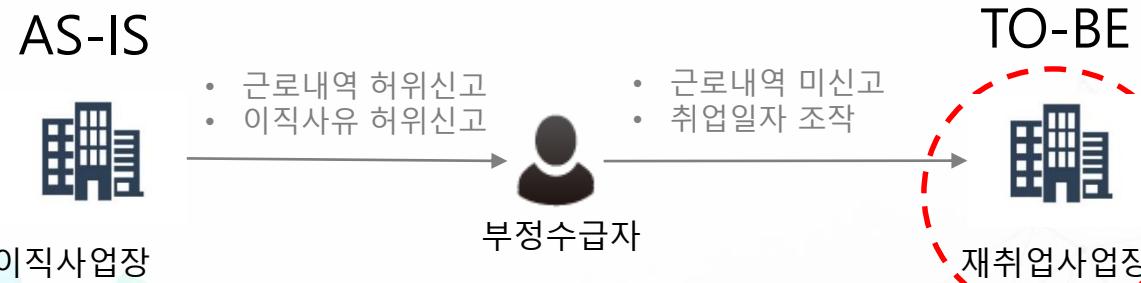


의심사업장 발굴

유형	의심사업장 후보 CASE
B	동일 사업장 재취업하여 근무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사업장
C	부정수급 연대책임 건 중 연대책임이 사업장 또는 사업주인 경우의 사업장
D	취업경과일수가 0~10일인 사람이 1명 이상 있는 사업장
E	재취업자중 위험등급이 1~2등급이 3명이상 있는 사업장
F	총상시근로자 대비 연평균 퇴사자(=해당 사업장을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비중이 25% 이상인 사업장

4. (재)취업사업장 정보 기반 의심사업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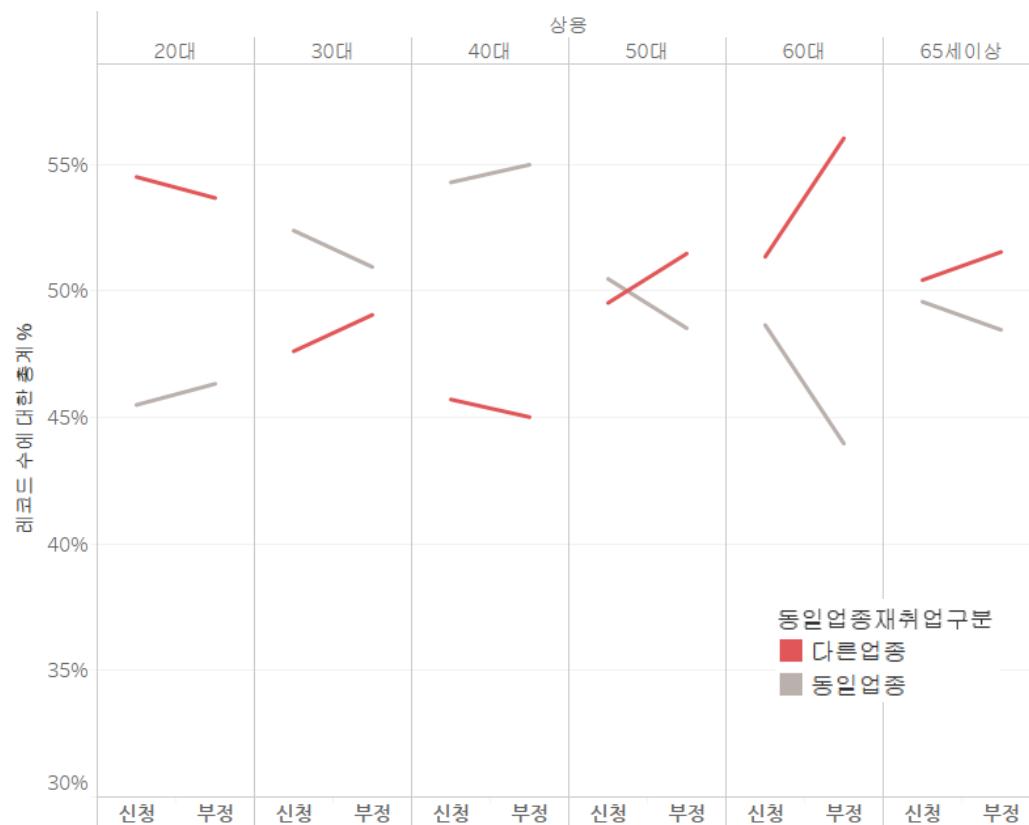
사업장 분석의 필요성 : 최근 경찰청합동 조사로 진행되는 기획수사의 경우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



4. (재)취업사업장 정보 기반 의심사업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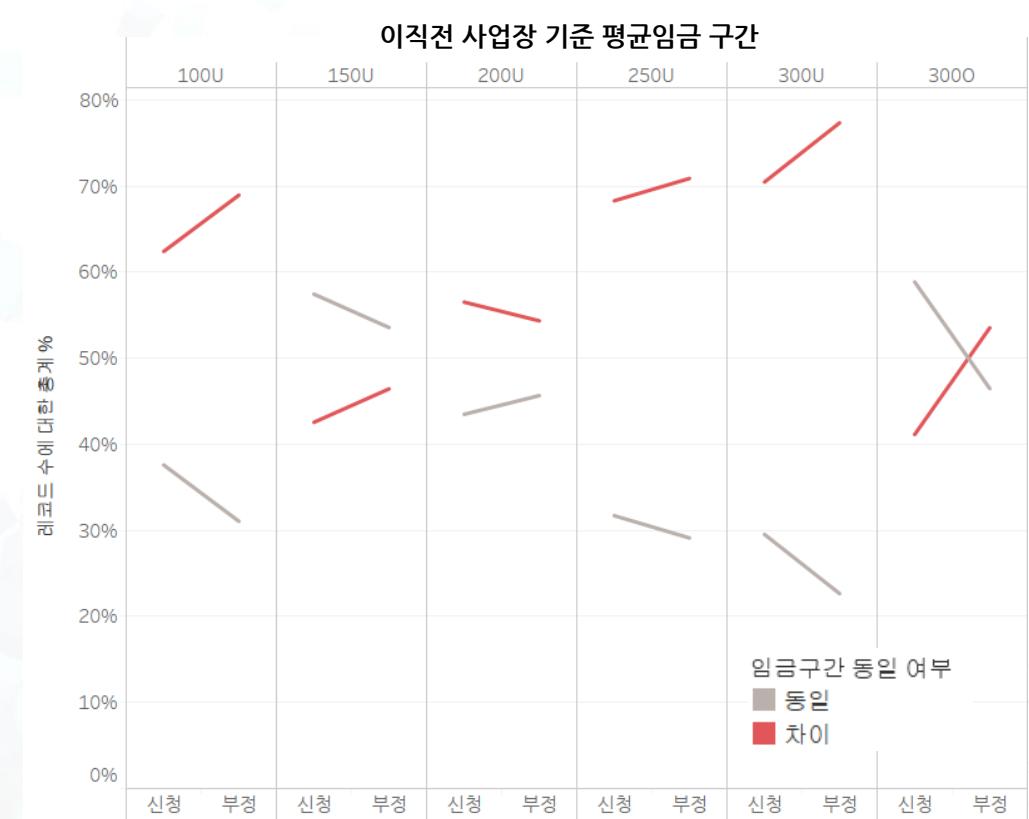
□ 동일업종 재취업 여부

- 50대, 60대 상용직이 다른업종 재취업시 부정수급자 비중이 높음



□ 재취업 임금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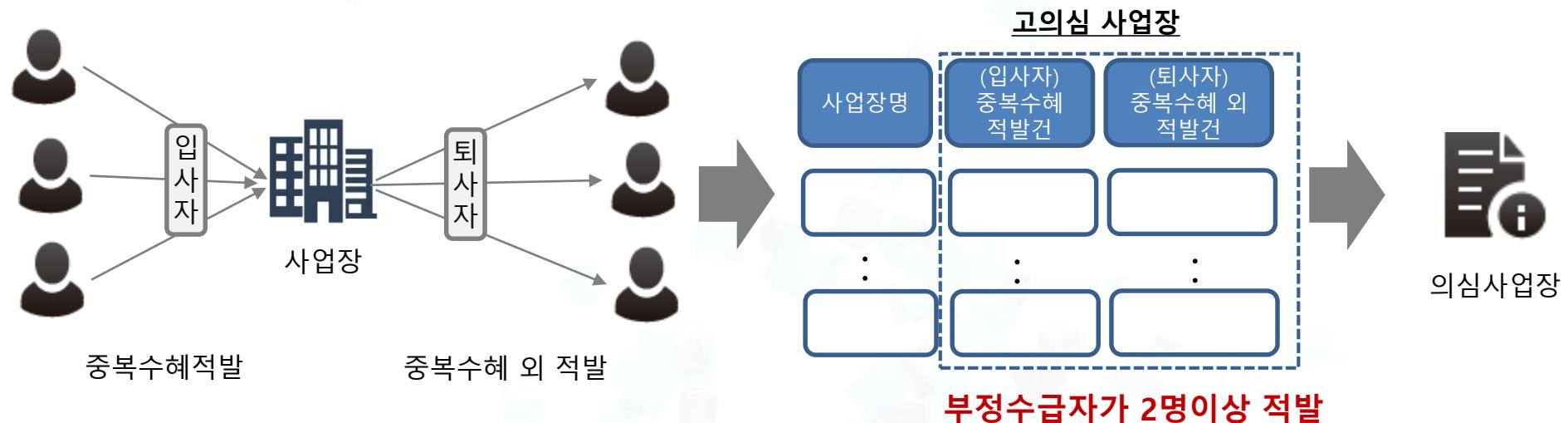
- 이직전 평균임금 구간이 100만원이하, 250~300만원 구간에서 임금 차이가 있을 경우 부정수급자 비중이 높음



4. (재)취업사업장 정보 기반 의심사업장 분석

□ 고의심 사업장 도출

- 현재의 부정수급자 적발은 데이터상 부정수급 관련하여 이직, 취업 사업장 어디에서 적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함
- 금번 데이터 분석은 중복수혜 적발 여부로 이직 사업장/취업 사업장 어디에서 적발되었는지 구분 (고의심 사업장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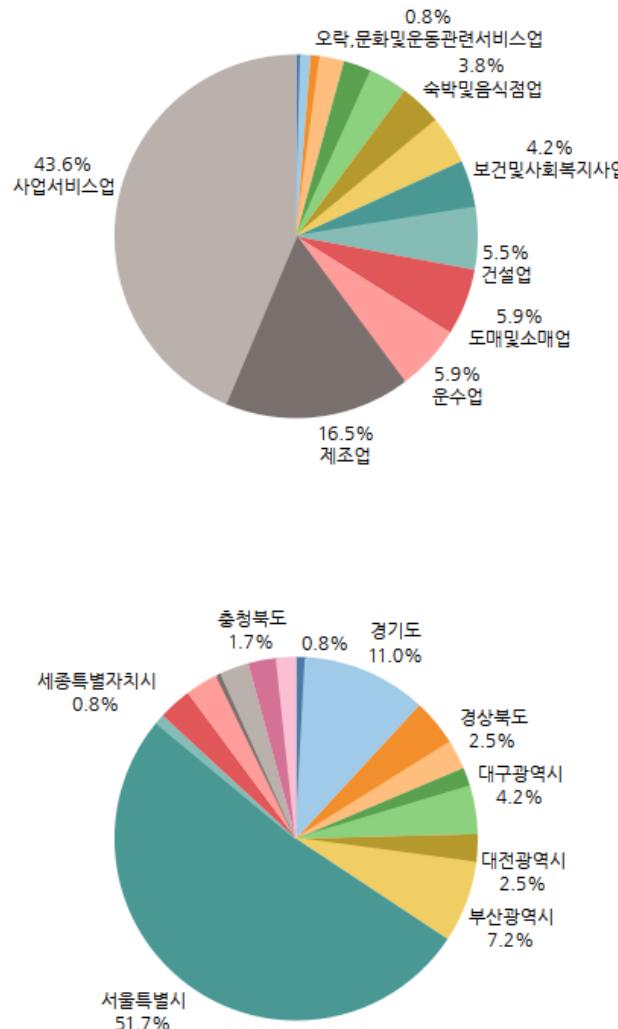
단위: 개

유형	최종 분석 사업장 수	부정수급자가 1명 이상 포함된 사업장	비율(%)	최종 근로자 수	부정수급자 수	비율(%)
전체	110,428	4,496	4.1%	177,012	4,973	2.8%
고의심 사업장	247	247	100.0%	7,524	770	10.23%

4. (재)취업사업장 정보 기반 의심사업장 분석

□ 고의심 사업장 특성

- 고의심 사업서비스업, 서울시 비중이 높음



□ 일반 사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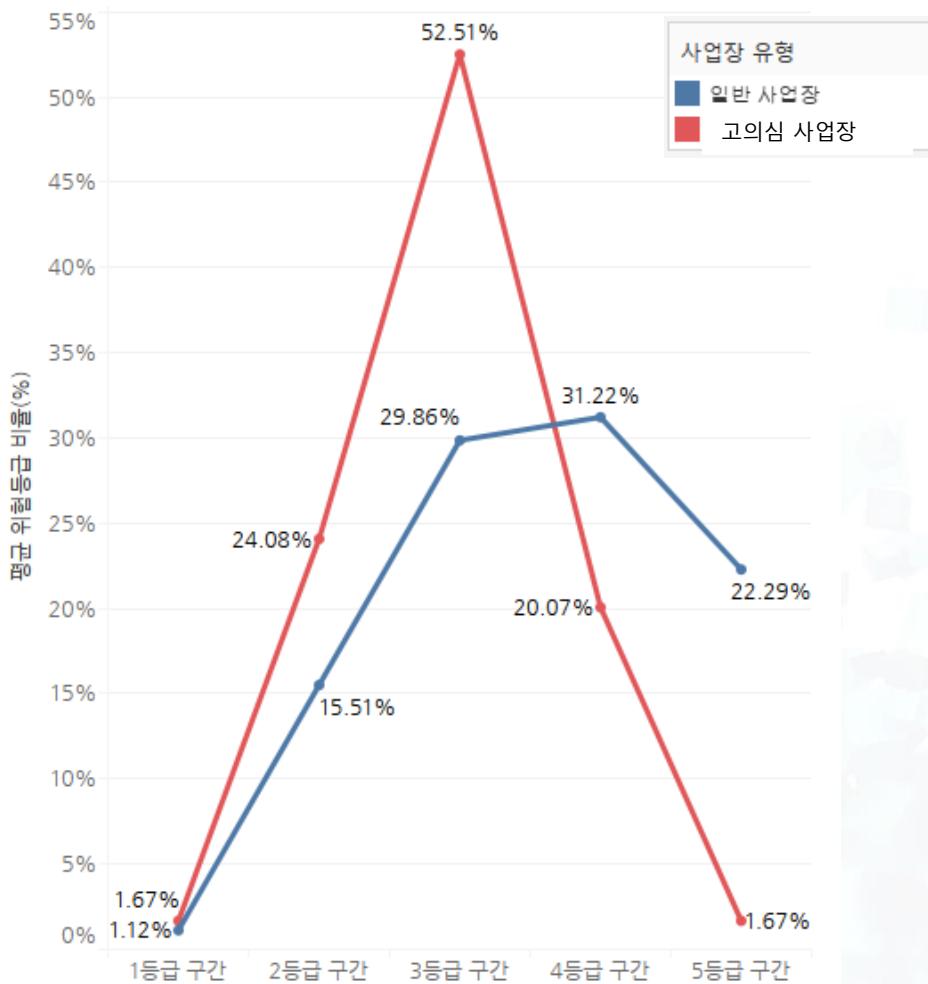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업종소분류	
가사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입법및일반정부행정	4
금융및보험업	금융업	비통화금융기관	2
		통화금융기관	2
	보험및연금업	보험및연금업	2
부동산및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7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고등교육기관	9
도매및소매업	도매및상품증개업	기타도매업	4
	소매업:자동차제외	종합소매업	5
보건및사회복지..	보건업	의료업	6
	사회복지사업	비수용복지시설	3
숙박및음식점업	숙박및음식점업	음식점업	9
건설업	건설업종합건설업	건설업	10
운수업	운수업여행알선,창고및운송..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7
	운수업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	도로화물운송업	2
		육상여객운송업	2
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고기,과실,채소및유지가공업	5
	제조업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
	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3
	제조업기타운송장비제조업	선박및보트건조업	6
	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	자동차부품제조업	3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	2
	제조업전자부품,영상,음향및..	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음향기기..	2
	제조업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및금속처..	4
사업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전문,과학및기..	시장조사및경영상담업	3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및기타..	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	3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36	
	사업시설유지관리및고용서비스업	59	
총합계			203

INDUTY_LCLAS_NM	
제조업	2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0%
도매 및 소매업	13.0%
사업 서비스업	12.6%
건설업	7.7%
가사 서비스업	1.7%
광업	0.1%
교육 서비스업	5.1%
금융 및 보험업	0.7%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	3.5%
농업 및 임업	0.3%
부동산 및 임대업	4.7%
숙박 및 음식점업	4.2%
어업	0.2%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1.2%
운수업	3.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1%
통신업	0.2%

4. (재)취업사업장 정보 기반 의심사업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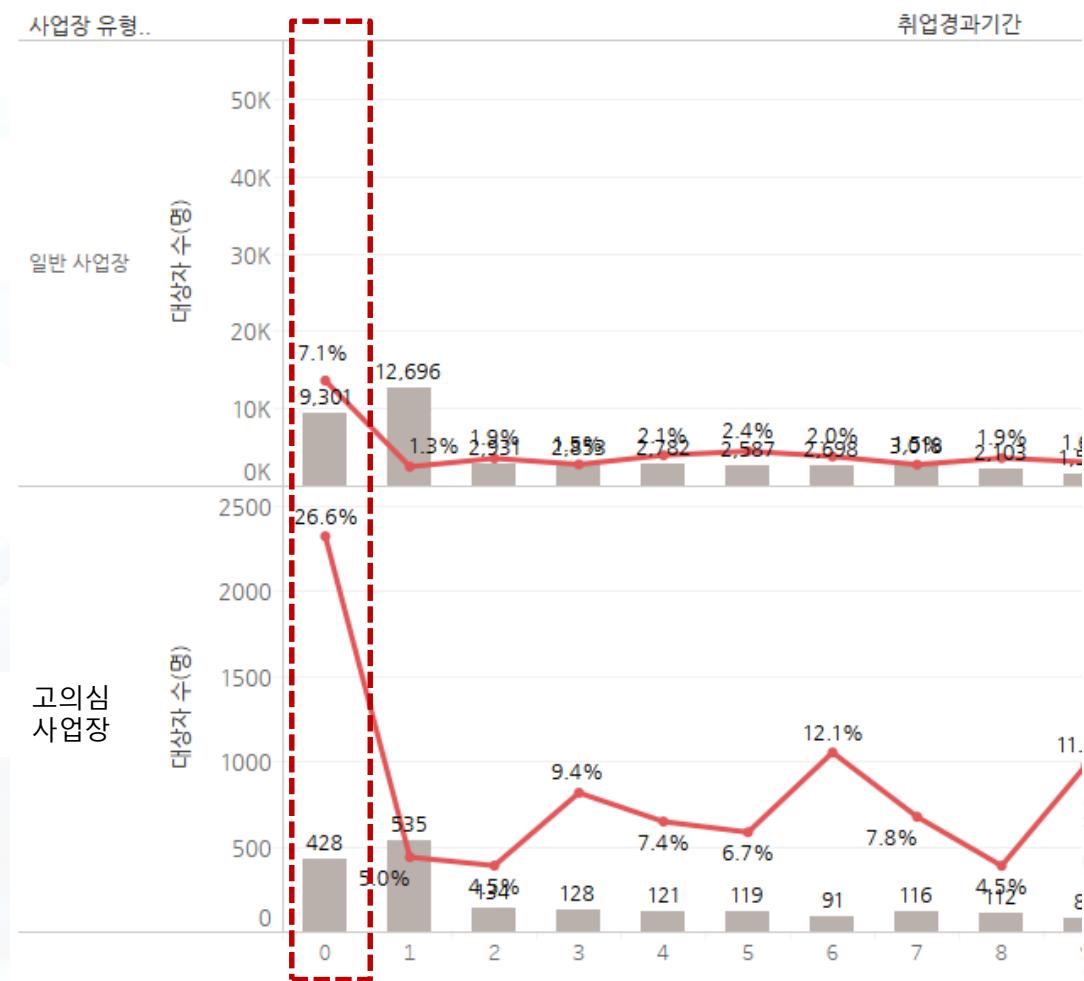
□ 평균 위험등급 비교

- 위험등급이 높은 1~3등급에서 고의심 사업장 비율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높고, 위험등급이 낮은 4~5등급에서는 비율이 낮음



□ 취업경과기간별 (재분류)부정수급자 비율

- 일반 사업장은 7.1%인데 비해 고의심 사업장은 26.6%로 약 3.7배 높음



4. (재)취업사업장 정보 기반 의심사업장 분석

□ 의심사업장 발굴

- 부정수급 조사관들이 제시하고 현재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기획수사 등에서 적발하고자 하는 유형과 부정수급자 재분류를 통한 고의심사업장 특성분석을 통하여 지속적 의심사업장 유형 발굴이 필요함

의심 사업장 유형 후보 List

1. 심층 인터뷰 상에 제기된 의심 사업장 유형

- 동일 사업장 재취업하여 근무한 사람이 많은 사업장**
- 부정수급 연대책임 건 중 연대책임이 사업장 또는 사업주인 경우의 사업장취업경과일수가 0~10일인 사람이 있는 사업장**

2. 고용노동부/한국원 자체 기획조사용 유형

- 구직급여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
- 수급자 중 이직전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장**
- 이직 후 30일 이내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고하는 수급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고의심 사업장 특성 분석

- 위험등급이 1~3등급인 재취업자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
- 30대, 50대, 60대, 65세이상에서 다른업종 재취업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
- 이직전 사업장 업종이 ‘광업’, ‘금융 및 보험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운수업, 통신업종에서 임금구간 차이가 있는 재취업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

데이터 분석 가능여부
(Measurable & Manage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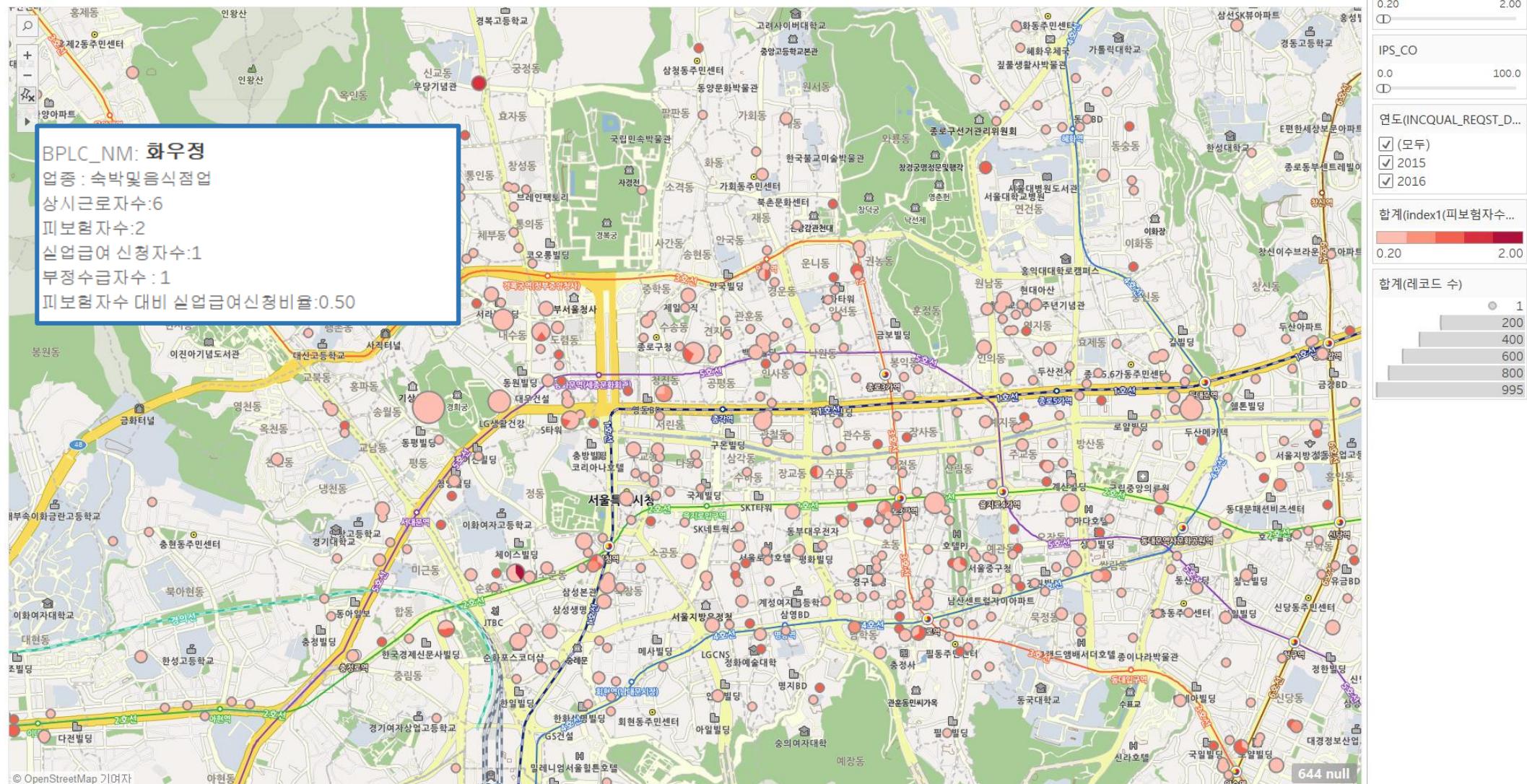
의심사업장 유형

유형	의심사업장 후보 CASE
B	동일 사업장 재취업하여 근무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사업장
C	부정수급 연대책임 건 중 연대책임이 사업장 또는 사업주인 경우의 사업장
D	취업경과일수가 0~10일인 사람이 1명 이상 있는 사업장
E	재취업자중 위험등급이 1~2등급이 3명이상 있는 사업장
F	총상시근로자 대비 연평균 퇴사자(=해당 사업장을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비중이 25% 이상인 사업장
:	

4. (재)취업사업장 정보 기반 의심사업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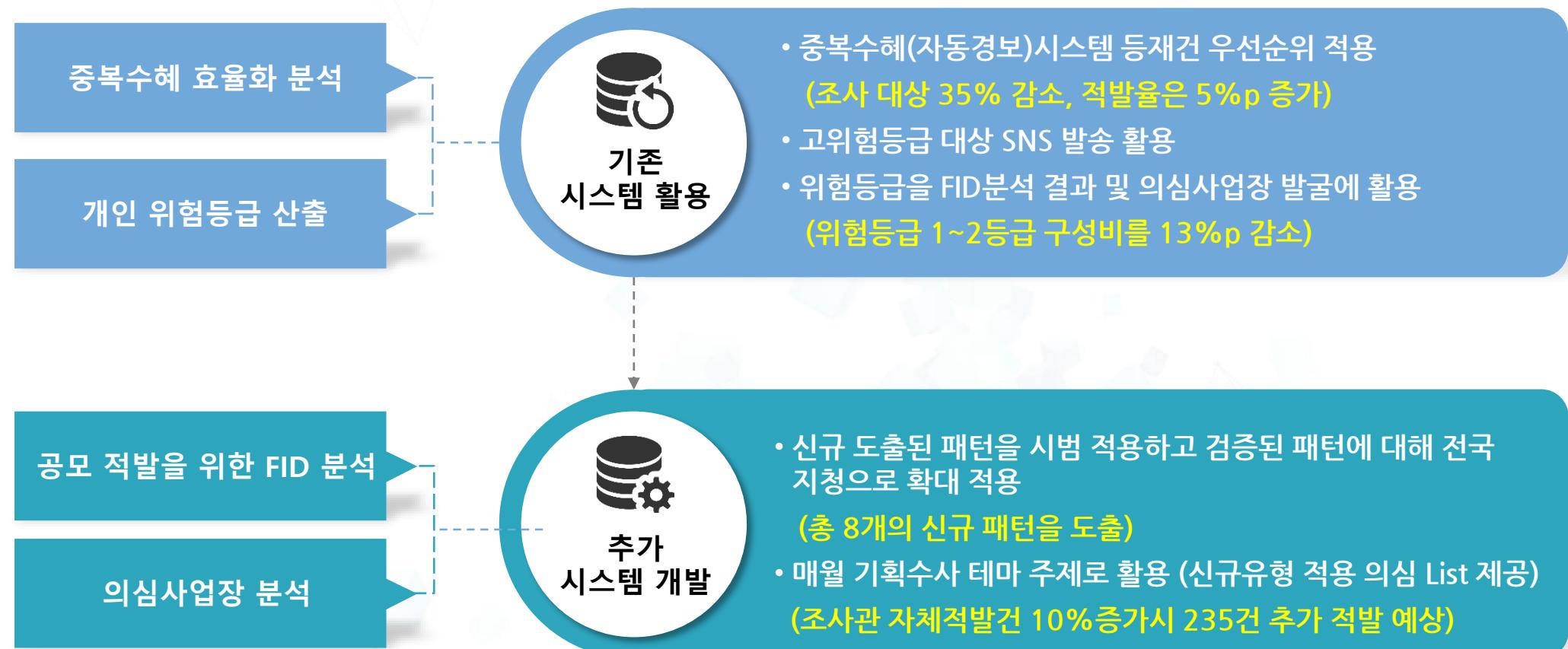
□ 활용 예시 - 실업급여 신청, 부정수급자 사업장 분포

1. 재취업사업장



향후 시스템 적용 및 활용방안

기존 시스템이 존재하는 중복수혜 및 위험등급 분석결과는 검증과정을 거쳐 바로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FID 및 사업장분석결과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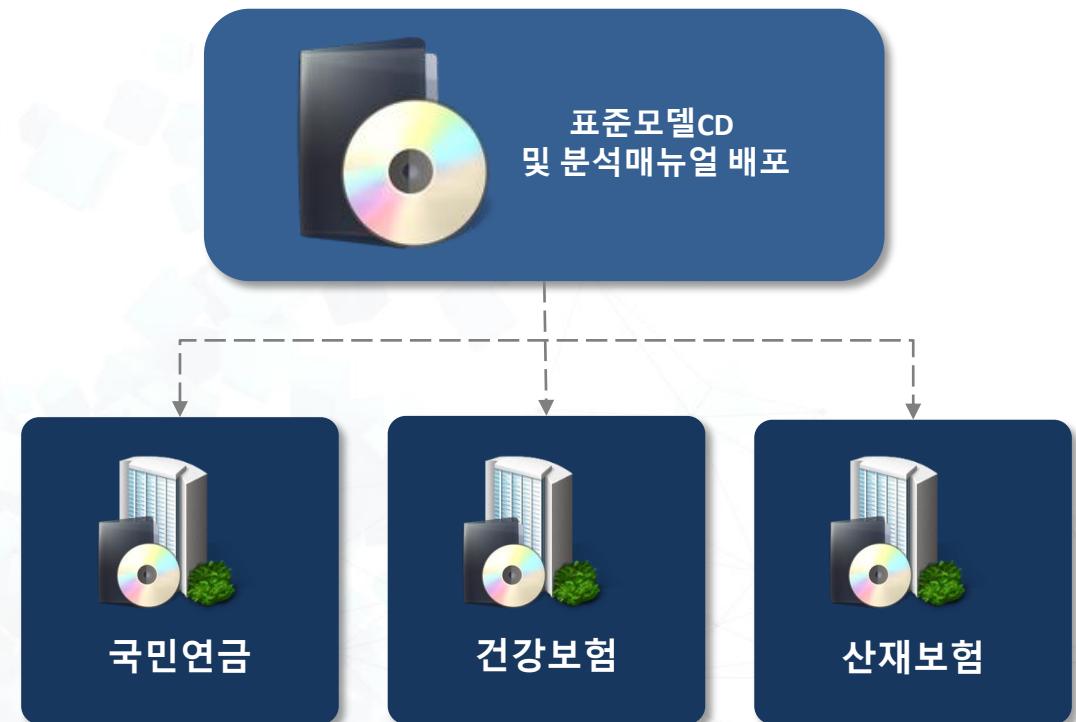
향후 확산 방안

부정수급 위험도 측정 모델을 “고용안정”, “모성보호”, “직업능력” 등 실업급여 이외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확대 적용을 위한 분석모델 확대 적용 추진

고용보험



타 기관/부서의 부정수급 적발업무에도 FID
분석모형을 응용할 수 있도록 표준분석모델
사용자매뉴얼과 분석패키지를 배포





감사합니다.

국민 생활과 함께하는
공공 빅데이터